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문화향기

이미경

(사)멕시코소년
사회교육원장



“즐거움 일도 많지만 슬픈 일 걱정도 많아요// 얼어붙은 마음을 따스한 노래로 녹여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평화를 전하는 노래//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평화롭게 우리 만들어가요”

눈 덮인 산자락 하얀 건물 안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 2000년도 음악치료라는 학문을 평생교육원에서 알게 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나의 인생은 180도 전환되었다. 그중에서도 국립나주병원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고향과 같은 곳이다.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음악의 힘을 새롭게 알게되면서 이렇게 좋은 음악치료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찾아간 곳이다. 처음에 마주한 치료팀은 “음악으로 치료를 한다고요?”하면서 의아해하였다. 반신 반의하면서 환자들을 위한 노래교실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 10년 넘게 이어갔고 덕분에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받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 당시에는 소련토를 타고 다녔는데 차에 한가득 악기를 싣고 장애인센터로, 노인시설로, 청소년시설로, 지역아동센터로, 다문화센터로 하루에 5-6곳을 다

니면서 음악으로 행복을 나누었다. 8년 동안 주행거리가 26만km 였으니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매주 수요일 국립나주병원에 가는 길은 늘 신나고 즐거웠다. 하루도 빠지 않고 건물앞을 배회하던 환자분은 얼굴을 마주치면 “언니 100원 있어?”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였다. 알고보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분이셨다. 다음부터는 항상 동전을 준비해서 미리 건네곤 하였는데 언제부터가 보이지 않아서 늘 궁급했다. 당시에는 장기간 입원이 가능해서 오랫동안 가족처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오랜 시간동안 그 분들로 인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해 나갔다.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봉사를 마무리하고서도 늘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던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위해 도와왔던 선생님은 팀장님이 되어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한 달에 달려갔다. 병원 환경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소아·청소년 병동과 재활병동에 있는 환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큰 기쁨이었다. 고향에 돌아온 기분으로 초발심을 내고 싶었다. 명상 음악과 함께 마음을 안정 시키고 새로운 악기를 연주해 보면서 자신감을 획득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나갔다.

요즘 소아 청소년들의 마음의 병이 깊

어지면서 자해를 심하게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이었다. 아이들은 4회기가 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불러보면서 내면의 생각을 표현해 보게 하였다.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내가 만일 퇴원을 한다면? 내가 만일 25살이라면? 내가 만일 지금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폭력을 안 쓸거예요. 엄마한테 대들지 않을거예요. 친구들이랑 잘 지낼 거예요”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이야기 하였다. “정말 잘하고 싶지만 안될 때 어떻게 할까?” 퇴원을 앞둔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라고 하자 한 친구가 그동안 교육받으면서 배운 이야기를 이야기 해주었다.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이 좋아하는 야구공을 가지고 가서 운동을 해봐” 퇴원을 앞두고 기분이 좋은 친구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해 보겠다고 다짐하였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마음이 잘 안 될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마음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노래 가사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평화롭게 우리가 만들어가야겠다.

가슴 두근거리면서 시작된 봉사가 이제는 나를 위한 일이 되었다. 언제까지라도 나의 음악이 필요한 곳에 항상 곁에 있고 싶다.

社說

아쉬운 광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인식 바꿔 시민에 자긍심 줘야

광주에서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는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열린 대형 전시가 광주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지닌 대전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다. 공공미술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화예술 중심도시’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출범 이후 광주는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반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전시나 공연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대형 행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도 제한적이다. 당장 최근 광주에서 열린 대형전시는 지난 2008년 광주시립미술관이 개최한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무려 17년 동안 눈에 띄는 대형전시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니 믿겨지지 않는다.

문화예술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

이다. 도시의 경쟁력에도 도움을 준다. 지역에서 열리는 ‘블록버스터급 전시’는 또 도시의 인지도를 높여 투자 유치나 관광 산업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광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시가 2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불멸의 화가 반 고흐’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도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를 높여려는 시도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국에 나가야 볼 수 있는 대형전시를 광주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의미 있는 투자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문화를 위한 예산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전시가 예술성에 치중돼 일반 대중의 관심을 불러들여 대형 전시를 개최하려는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역의 목소리도 겸허히 들어야 한다. 관람객을 찾아보기 힘든 지금 광주 미술계의 현실은 그들만의 예술을 추구해 온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대형 전시 유치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습지복원은 기후위기 맞서는 중요한 일

순천 역간척 미래 위한 투자

순천시 ‘동천 하구 습지 복원’에 나선다고 한다. 순천만의 생태·경제적 가치를 도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순천만습지와 도심 사이에 있는 동천하구는 생물 다양성과 연안습지로서 원형이 잘 보존돼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농경지의 영농 활동 등으로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순천시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이들 농지를 사들이고 있다. 올해까지 사들인 농지는 해수 유통을 통해 습지로 복원하는 ‘역간척’에 나선다는 것이다. 순천시의 습지 복원 노력은 갯벌 등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1960년부터 바다·하천·호수 등을 매립해 왔다. 경제성장 속도만큼 매립면적도 꾸준히 늘었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 공유수면 매립지는 총 3억 974만㎡로 대략 합평균 크기 정도라고 한다.

한반도 지도가 바뀔 만큼의 면적이다. 하지만 매립으로 수많은 생명이 꿈틀대던 공간은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무분별한 매립은 소중한 것들을 잃게 했다. 매립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 침식이 가속화했고, 갯벌 생태계 파괴와 어획량 감소, 대기오염 악화의 주범이 됐다. 갯벌은 생명의 터전이다. 어린이들에게 생업을 위한 공간으로 한 해 갯벌 내 어획량만 3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저장장고이며 정화 기능도 갖췄다. 습지는 그 자체만으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습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반갑다.

순천시가 습지 복원을 위해 행동에 나선 건 미래를 위한 투자다. 기후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전 세계가 행동에 나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습지를 보전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기후 위기에 맞서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순천의 사례처럼 우리 모두가 습지 보존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인명 수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뉴스

서석대

조선시대 한양도성 4대문을 기점으로 대략 10리까지의 외곽지역을 성저십리(城底十里)라 불렀다. 이 성저십리는 요즘으로 치면 개발제한구역이었다. 성저십리 지역에서는 소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했고, 산을 깎아 묘지로 쓰는 일도 못했다. 배고픈 백성들이 산에 올라 나무뿌리를 캐먹거나 풀을 태우는 것도, 산에 있는 돌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었다. 성저십리에서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규제한 것은 도성에 살던 왕과 왕족, 고위 관리와 사대부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시대 성저십리를 보호한 목적은 요즘의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green belt)와는 사뭇 다르지만,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성저십리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가 도입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이다. 1971년 6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그린벨트와 관련된 첫 지시를 내렸다. 1971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그린벨트는 1977년 4월 여수권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4개 도시권역에 설정됐다. 전국 지정 면적은 5397.1km²로 우리나라 총 면적의 5.4%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지정된 이래 1999년까지는 절대 풀릴 수 없는 ‘죽쇄’였다. 19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1만㎡ 이상의 농장과 과수원을 소유한 농업인은 기존 소유 주택을 헐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린벨트 완화정책이 조금씩 진행

그린벨트 활용법

대 왔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광주는 광산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은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과 담양 제2일반산단이 포함됐다. 미래차국가산단 예정부지는 광산구 오운동 일대 338만4000㎡(102만평) 중 95.6%인 323만4000㎡(98만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사실 광주와 전남은 전체 면적의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한다. 이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뜻일 것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광주·전남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하지만 속도다. 그린벨트 해제 소식은 해당 지역 일대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목적인 개발 계획에 기업들이 가장 크게 매력을 느끼는 건 해제부지의 ‘적정 가격’이다. 주변지역이 투기과열로 이어진다면 그린벨트 해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부족한 산업부지 확보를 통해 기업 유치를 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지 않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실 속에서 광주·전남의 미래가 그린벨트 부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제 부지에 속도감 있는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는 ‘그린벨트 활용법’이 절실히 보인다.

김성수 논설위원

| 全南日報 | 시장·발행·편집인 | 이재욱 | 논설실장 | 이용환 | 편집국장 | 박성원 |
|---|------------------------------|--------------------|-----------------------------|---------------|------|-----|
|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 대표전화 | (062)527-0015 | 경영지원팀 | (062)510-0421 | | |
| | 기사제보 | (062)510-0331 | 광고영업팀 | (062)519-0710 | | |
| | 편집부 | (062)510-0412 | 문화체육부 | (062)510-0351 | | |
| | 취재1부 | (062)510-0380 | 온라인뉴스부 | (062)510-0461 | | |
| | 취재2부 | (062)510-0394 | 사진부 | (062)510-0391 | | |
| 정치부 | (062)510-0340 | | | | | |
|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 |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 구독신청 (062)510-0471 | | 광고문의 (062)512-0100 | | | | |
| FAX (062)510-0436 | | 서울지사 (02)725-8890 |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